

# 대학생의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을 조절효과로\*

유영철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 석사)\*\*

이원일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가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와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종속변수인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제도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효능감이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창업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극대화하고 실천창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내외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아이템을 실제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계,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멘토링 제공, 상시상담이 가능한 창업상담창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내 창업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제도 및 창업의 간접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창업지원정책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내 교수, 직원, 선배창업자 등 창업 분야의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창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선배창업자의 창업실패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창업특강, 대학생의 전공별, 개인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대학생의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 1. 서론

### 1.1 연구배경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란 관점에서 창업가는 후천적 육성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과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의 비정규교과의 창업교육과 창업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실현을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창업교육의 강화와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대학에서의 창업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부(201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2013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대학의 창업도전을 위한 환경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부(2018)는 2018년 ‘제2차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제1저자,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석사, s170777@naver.com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tech201@hanbat.ac.kr

· 투고일: 2023-03-09 · 1차 수정일: 2023-04-17 · 2차 수정일: 2023-04-24 · 게재확정일: 2023-04-25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제 1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대학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에서는 창업관련 직·간접 경험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등과 같은 활동들과 창업 휴학생,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수, 학생 창업기업 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시행대학 및 수혜학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창업가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내 교수를 비롯하여 창업전담부서의 직원, 선배창업자 등 창업 분야의 멘토 연결을 통한 창업멘토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은주(2012)는 창업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통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현준(2015)은 교육 만족은 교육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으로, 창업교육내용 만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임교순(2013)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창업동기, 창업지원제도로 분류하여 창업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연수·조성의(2013)는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육, 정보제공,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의 지원사업이나 창업 분위기 등은 대학의 창업문화가 될 수 있고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강임(2018)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대학의 지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창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자 특강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직·간접 경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광동신(2020)은 조장현(2017)의 척도를 적용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멘토링의 동기부여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의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와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는 점과 창업멘토링을 멘토링 기능과 멘토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가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와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2.1.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란 관점에서 창업가는 후천적 육성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창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Ronstadt(1985)는 창업가는 후천적 육성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을 직업교육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잠재적 창업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병주(1998)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가의 경험을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창업과 관련한 활동을 촉진하게 하며,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기홍, 김용태(2014)는 창업자 역량 강화와 후천적 역량 습득, 창업의지 극대화를 위해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박은주(2012)는 창업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통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정규 교과(창업강좌)와 비정규 교과(창업활동)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규교과는 교과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 기준 정규교과(창업강좌)는 대학(원)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의되며,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등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를 지칭 한다.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를 살펴보면 2020년 정규교과(창업강좌)를 운영한 학교는 309개교이며, 총 강좌수는 15,462개, 수강인원은 474,242명으로 평균 1,534.8명의 이수 학생 수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교과(창업활동)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업무 경험, 생태계 체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현장실습 등으로 정의되며, 대표적으로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캡트 등을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 이후 행해지는 만족도 조사는 교육의 주관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고 향후 교육시 얻은 의견을 토대로 계획 수립을 통해 개선된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창업교육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재환·김용태(2009)는 만족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또는 욕구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 언어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오현준(2015)에 따르면 교육 만족은 교육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이며,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생들의 참여 상태, 지원 서비스, 시설 및 교육여건 등의 경험에 대한 교육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2.2. 창업지원제도인식

#### 2.2.1. 정부창업지원정책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하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실현을

국정목표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창업교육의 강화와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대학에서의 창업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2022)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원기관 94개(중앙부처 14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63개)와 대상사업 378개, 지원예산 3조 6,668억원으로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방섭(2004)는 정책적 제도적인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창업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 실천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임교순(2013)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창업동기, 창업지원체도로 분류하여 창업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2.2. 대학창업지원사업

대학에서는 창업관련 직·간접 경험을 위한 창업교육, 창업 동아리 등과 같은 활동들과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Mian(1996)은 대학의 창업교육, 공간 지원, 자금 지원 등의 창업지원제도는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서정해(2006)는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근간이 되는 곳을 대학으로 주장하였으며, 기업가를 양성해 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육부(2018)은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제 1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창업 강좌의 경우 개설 대학 수는 2012년 133개교에서 313개교로, 수강 인원도 2012년 159,456명에서 385,571명으로, 창업 교육 확대에 힘입어 학생 창업기업 수도 2012년 377개에서 1,191개로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창업동아리의 경우 2012년 1,933개에서 5,468개로 2.8배가 증가되었으며, 대학 내 창업지원예산도 2012년 230억원에서 1,240억원으로 5.4배 증가하였다. 또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 시행대학 및 수혜학생이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등과 같은 활동들과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등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연수·조성희(2013)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육, 정보제공,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의 지원사업이나 창업 분위기 등은 대학의 창업문화가 될 수 있고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

다고 주장하였다. 이강입(2018)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대학의 지원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창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자 특강 등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직·간접 경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2.3. 창업멘토링

오늘날 멘토링은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창업멘토링은 창업교육 분야의 교육 방법에 적용되어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이 본 교육을 받고 있다. 멘토와 멘토링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로 Levinson & Mckee(1978)는 멘토란 어느 분야에 오랜 기간 있었고 그 분야에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라고 정의하였다. Noe(1988)는 멘토에 대해 어떤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 후배에게 역할모형이 되어 조직 내 입사자들의 경력개발, 대인관계, 문제해결 등을 제공하는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 정의하였다. Day & Allen(2004)은 멘티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며, 멘티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멘토를 정의했다. 멘토의 개념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멘토링의 정의를 내리자면 멘토링은 ‘멘티의 생각과 멘티의 미래, 그리고 멘티의 성장 단계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Sour & Rasmussen, 2003).

멘토와 멘티간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정의된 멘토링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 많이 인용되고 있는 Kram(1983)은 조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진행을 통해 멘토가 멘티에게 제공하는 멘토링 기능을 9가지로 정의하여 이것을 경력개발 기능과 심리사회 기능 2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Burke(1984)는 조직 내 입사자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모델 기능으로 정의하여 앞서 구분한 경력개발 기능과 심리사회 기능에 역할모델 기능을 추가하여 구분하였다.

Viator(2001)는 경력개발 기능을 멘티가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학습하게 도와주고, 조직에서 승진 등 경력개발을 위한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기능을 뜻하며, 도전적 업무수행, 노출 및 소개, 후원, 지도, 보호 기능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Kram(1983)의 연구를 인용하여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조장현(2017)은 창업 멘토링 특성을 반영한 창업 멘토링 척도 개발을 국내 최초로 연구하였고, 창업 멘토링 기능 척도의 4개 구성요인(문제해결, 네트워킹, 의사소통, 동기부여)과 16개의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광동신(2020)은 조장현(2017)의 척도를 적용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멘토링의 동기부여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연구 대상과 연구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다. 윤성준(2000)은 신뢰는 사람과 사람 간, 사람 대 사물 간 관계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확신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Wrightsman(1991)에 따르면 과거 경제학자들은 신뢰를 인지적 계산구조가 들어간 계산적 신뢰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현재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계산적 신뢰보다 초기에는 더디게 관계가 형성되지만 관계가 일단 형성되면 오래 지속되는 관계적 신뢰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 신뢰는 이성적 평가과정과 인지적 신뢰로부터 형성된 정서적 신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Parayitam & Dooley, 2009; McAllister, 1995)는 연구를 인용하여 창업멘토링을 진행했을 때 멘티가 지각하는 신뢰를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살펴보고 있다.

## 2.4. 창업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창업효능감에 따라 달라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하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강재학·양동우(2016)은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확장된 개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행동을 창업자로서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창업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Boyd & Vozikis(1994)는 창업효능감이란 특정업무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감으로, 주어진 환경에 맞는 행동들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신념 및 선택 혹은 욕구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창업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ycock et al.(1998)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심리를 반영하는 대표적 변수 중 하나로서 성과를 위한 요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보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해룡(2008)은 창업의도 형성에 창업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창업의도로부터 창업행동으로의 연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창업효능감을 제시했다. 정유선(2018)은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처한 상황과 취하는 행동, 개인의 인지적 판단 등의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연석(2019)는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창업 행동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향숙(2021)은 40세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2.5. 창업의지

Gartner et al.(1992)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을 창업으로 정의하였다. Bird(1988)는 특징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 목표나 계획에 관심을 쏟는 마음의 상태를 의지라고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조직고용에 반대되는 것으로써 자영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 등을 다루는 마음의 상태를 창업의지로 정의했다.

오래전부터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계획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은 대표적인 의지 모델로 창업을 위한 일정량의 계획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행동을 채택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창업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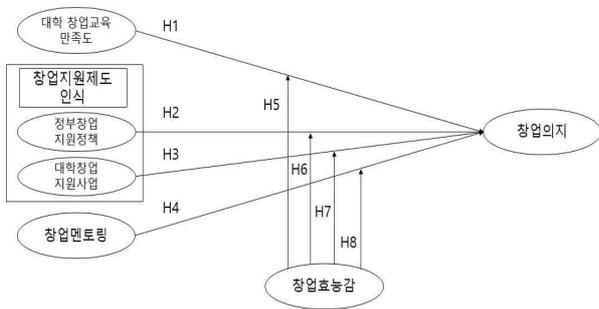
Katz & Gartner(1988)는 계획된 행동인 창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Veciana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조직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창업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Krueger & Brazeal(1994)는 흔하지 않거나 관찰이 어려운 행동 또는 예측이 어려운 시간적 지체를 동반하는 행동 예측을 위해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Linan & Chen(2009)는 창업의지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방섭(2004)은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으로 개인특성요인과 환경요인의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개인특성요인 중 창업에 대한 자기유능성이 창업의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연호(2009)는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 중에서 사업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사회적문화요인 중에서 기업이미지와 대학의 창업문화, 네트워크 환경이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 중에서 창업강좌와 창업자문단 그리고 창업한 졸업생의 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홍정표(2014)는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 중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이 경력지향성 중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사회 환경적 중 개인네트워크, 사회적 인식과 창업정책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전공, 창업 교육여부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수·조동환(2020)은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의 중요도 비교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과 준거집단의 영향력, 사회적 역할 모델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창업가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 연구와 다시 교육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III. 연구의 설계

#### 3.1. 연구모형의 설계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창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계획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계획된 행동인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창업의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Katz & Gartner, 1988).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창업효능감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 3.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멘토링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창업효능감은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8: 창업효능감은 창업멘토링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을 채택하고 종속변수로는 창업의지를 선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창업효능감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 중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항목과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아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정의	참고문헌	문항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대학 창업교육 과정의 내용, 강사 역량, 커리큘럼, 교육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Astin(1997), 오현준(2015) 황규삼(2017), 나현미(2019) 김명숙(2019), 한원희(2019)	5
정부창업 지원정책 (창업지원 제도인식)	창업정책에 대한 호응도, 컨설팅, 자금지원 등의 정부창업지원정책	조영조(2016) 이강임(2018)	7
대학창업 지원사업 (창업지원 제도인식)	창업교육 강좌, 컨설팅, 창업동아리, 대학의 창업문화 등의 대학창업지원사업	조영조(2016), 이강임(2018) 임교순(2013), 오상훈(2013) 장연수 조성희(2013) 김봉준 조성희(2014)	8
창업 멘토링	멘토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외부전문가 연결,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업수행 노력에 대한 격려 등의 멘토링 기능	Mayfield et al.(1995) Walter et al.(2006) Atuahene et al.(2011) 김세웅(2009) 조장현(2017) 광동신(2020)	16
	합리적인 이유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지적 신뢰와 상대방과의 관계나 소속감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의 정서적 신뢰로 정의	Lewis & Weigert(1985) Moorman et al.(1992) Johnson & Grayson(2005) Zur et al.(2012) 광동신(2020)	7
창업 효능감	특정업무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감으로, 창업목표를 위해 조건에 맞는 행동 과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개인적 신념 및 선택 또는 욕구에 대한 신념	Boyd & Vozikis(1994) 오연석(2019) 신항숙(2021)	7
창업의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도	Krueger & Brazeal(1994) Veciana et al.(2005) Liana & Chen(2009) 인승권(2016)	7

\*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작성

## IV. 실증 분석

###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의 표본은 충청권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1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부실하게 작성된 22부를 제거하고 총 294개 표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래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52	51.7
	여성	142	48.3
연령	19~24세	117	39.8
	25~29세	96	32.7
	30~34세	22	7.5
	35~39세	8	2.7
	40세 이상	51	17.3
학년	1학년	30	10.2
	2학년	31	10.5
	3학년	75	25.5
	4학년	126	42.9
	기타	32	10.9
전공	인문사회계열	25	8.5
	경상계열	76	25.9
	이공계열	118	40.1
	예체능계열	26	8.8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있음	101	34.4
	없음	193	65.6
합계		294	100.0

표본의 성별에 따른 비율은 총 294명 중 남성이 152명(51.7%)으로 여성 142명(48.3%)보다 많았다. 연령에 따른 비율은 19~24세 117명(39.8%), 25~29세 96명(32.7%), 40세 이상은 51명(17.3%), 30~34세 22명(7.5%), 35~39세 8명(2.7%)순으로 조사되었고, 학년에 따른 비율은 4학년 126명(42.9%), 3학년 75명(25.5%), 기타 32명(10.9%), 2학년 31명(10.5%), 1학년 30명(10.2%)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비율은 이공계열이 118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계열 76명(25.9%), 기타 49명(16.7%), 예체능계열 26명(8.8%), 인문사회계열 25명(8.5%)순으로 조사되었다.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에 따른 비율은 총 294명 중 없음 193명(65.6%), 있음 101명(34.4%)으로 조사되었다.

### 4.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타당성 검증이란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준으로 그 중에서도 구성개념 타당성은 측정문항의 결과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타당성 측정방법으로 보통 요인분석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측정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결과를 아래 <표 3>로 정리하였다.

<표 3> 분석 결과

문항	요인 분석	고유값	설명 분산	누적 분산	신뢰성분석 Cronbach's a 계수
창업교육만족도1	.848	3.537	7.527	71.807	.823
창업교육만족도2	.829				
창업교육만족도3	.785				
창업교육만족도4	.625				
창업교육만족도5	.568				
정부창업지원정책1	.723	5.179	11.019	47.898	.825
정부창업지원정책2	.801				
정부창업지원정책3	.813				
정부창업지원정책4	.802				
정부창업지원정책5	.704				
정부창업지원정책6	.686				
정부창업지원정책7	.798				
대학창업지원사업1	.547	3.637	7.739	64.280	.824
대학창업지원사업3	.761				
대학창업지원사업4	.463				
대학창업지원사업5	.820				
대학창업지원사업6	.845				
대학창업지원사업7	.577				
창업멘토링(문제해결1)	.688				
창업멘토링(문제해결2)	.707				
창업멘토링(문제해결3)	.725				
창업멘토링(문제해결4)	.734				
창업멘토링(동기부여1)	.840				
창업멘토링(동기부여2)	.814				
창업멘토링(동기부여3)	.819				
창업멘토링(동기부여4)	.812				
창업멘토링(멘토신뢰1)	.790				
창업멘토링(멘토신뢰2)	.783				
창업멘토링(멘토신뢰3)	.808				
창업멘토링(멘토신뢰4)	.832				
창업멘토링(멘토신뢰5)	.809				
창업멘토링(멘토신뢰6)	.835				
창업멘토링(멘토신뢰7)	.807				
창업효능감1	.648	4.062	8.643	56.542	.797
창업효능감2	.733				
창업효능감3	.710				
창업효능감4	.649				
창업효능감5	.568				
창업효능감6	.580				
창업효능감7	.656				
창업의지1	.758	6.127	13.036	36.880	.828
창업의지2	.683				
창업의지3	.846				
창업의지4	.806				
창업의지5	.787				
창업의지6	.865				
창업의지7	.811				

KMO=.945, Bartlett=13369.865(df=1081, p=.000)

이를 통해 다수의 변수들을 소수의 변수들로 간추릴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aiser-Myer-Olkin(KMO)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고 요인 회전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KMO 척도는 높을수록 좋으나 .5보다 높으면 요인분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Bartlett의 p값은 .05보다 낮으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요인분석결과 KMO척도는 0.945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13369.865(df=1081, p=.000)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므로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측정문항의 결과를 이용한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이란 연구자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준으로 동일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문항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값을 활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1과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창업멘토링의 멘토링 기능(네트워크 기능,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신뢰성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을 낮추는 문항이 있어 제거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42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3. 연구결과 및 가설의 검증

#### 4.3.1. 상관관계 분석

창업교육 만족도, 정부창업지원정책, 대학창업지원사업, 창업멘토링, 창업효능감, 창업의지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는 0.01 유의수준에서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를 아래 <표 4>으로 정리하였다.

<표 4> 상관관계분석

구분	창업교육 만족도	정부창업 지원정책	대학창업 지원사업	창업 멘토링	창업 효능감	창업 의지
창업교육 만족도	1					
정부창업 지원정책	.479 0.000	1				
대학창업 지원사업	.348 0.000	.451 0.000	1			
창업멘토링	.601 0.000	.514 0.000	.563 0.000	1		
창업효능감	.471 0.000	.478 0.000	.474 0.000	.606 0.000	1	
창업의지	.395 0.000	.322 0.000	.440 0.000	.390 0.000	.678 0.000	1

#### 4.3.2.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1: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멘토링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의 검증을 위하여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정부창업지원정책, 대학창업지원사업, 창업멘토링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수준
	B	표준오차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309	.086	.235	3.607	.000
정부창업지원정책	.052	.076	.043	.687	.492
대학창업지원사업	.310	.063	.309	4.927	.000
창업멘토링	.062	.086	.052	.718	.473

$R^2=.264$ (Adj  $R^2=.253$ ),  $F=25.854$ ( $p<.000$ ), Durbin-Watson=2.034,

검증 결과 가설 1의 경우 표준화계수 .235, 유의수준은 .000으로 유의수준은 .05에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설 1을 채택하였다.

가설 2의 경우 표준화계수 .043, 유의수준은 .492로 창업의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의 경우 표준화계수 .309, 유의수준은 .000으로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설 3을 채택하였다.

가설 4의 경우 표준화계수 .052, 유의수준은 .473으로 창업의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설 4는 기각되었다.

가설 5의 검증을 위하여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를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와 조절변수인 창업효능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창업효능감을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6>로 정리하였다.

<표 6>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수준	R <sup>2</sup> (Adj R <sup>2</sup> )	F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B	표준 오차					
1 상수 창업교육만족도	1.568 .519	.291 .071	.395	5.394 7.350	.000 .000	.156 (.153)	54.022 (.000)
2 상수 창업교육만족도 창업효능감	.201 .128 .789	.254 .064 .061	.097 .632	.790 2.009 13.025	.430 .042 .000	.467 (.463)	169.650 (.000)
3 상수 창업교육만족도 창업효능감 만족도*효능	-.365 .264 .945 -.037	1.143 .276 .314 .073	.201 .757 .198	-.319 .957 3.009 -5.07	.750 .340 .003 .612	.467 (.462)	.257 (.612)

검증결과 R<sup>2</sup>은 모형 1에서 15.6%, 모형 2에서 46.7%, 모형 3에서 46.7%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 변화량에서 .612으로 나타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기각되었다.

가설 6의 검증을 위하여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정부창업지원정책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정부창업지원정책과 조절변수인 창업효능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정부창업지원정책\*창업효능감을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7>으로 정리하였다.

<표 7> 정부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수준	R <sup>2</sup> (Adj R <sup>2</sup> )	F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B	표준 오차					
1 상수 정부정책	2.294 .393	.242 .068	.322	9.466 5.819	.000 .000	.104 (.101)	33.864 (.000)
2 상수 정부정책 창업효능감	.510 -.002 .847	.228 .060 .061	-.002 .679	2.232 -.041 13.837	.026 .968 .000	.460 (.456)	191.455 (.000)
3 상수 정부정책 창업효능감 정부정책*효능	1.542 -.301 .586 .074	1.006 .289 .256 .070	-.247 .469 .394	1.533 -1.040 2.294 1.054	.126 .299 .023 .293	.462 (.456)	1.111 (.293)

검증결과 R<sup>2</sup>은 모형 1에서 10.4%, 모형 2에서 46.0%, 모형 3에서 46.2%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유의확률 변화량에서 .293으로 나타나 정부창업지원정책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기각되었다.

가설 7의 검증을 위하여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대학창업지원사업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조절변수인 창업효능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대학창업지원사업\*창업효능감을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8>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수준	R <sup>2</sup> (Adj R <sup>2</sup> )	F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B	표준 오차					
1 상수 대학지원	2.228 .441	.179 .053	.440	12.456 8.377	.000 .000	.194 (.191)	70.172 (.000)
2 상수 대학지원 창업효능감	.341 .154 .756	.208 .048 .060	.154 .605	1.640 3.193 12.581	.102 .002 .000	.478 (.474)	158.290 (.000)
3 상수 대학지원 창업효능감 대학지원*효능	-1.084 .600 1.123 -.112	.772 .238 .201 .059	-.644	-1.405 2.526 5.594 -1.917	.161 .012 .000 .056	.484 (.479)	3.676 (.056)

검증결과 R<sup>2</sup>은 모형 1에서 19.4%, 모형 2에서 47.8%, 모형 3에서 48.4%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유의확률 변화량도 .056으로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가설 8의 검증을 위하여 1단계에는 독립변수인 창업멘토링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멘토링과 조절변수인 창업효능감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창업멘토링\*창업효능감을 투입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 9>로 정리하였다.

<표 9>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수준	R <sup>2</sup> (Adj R <sup>2</sup> )	F변화량 (유의확률 F변화량)
	B	표준 오차					
1 상수 멘토링	1.936 .461	.245 .064	.390	7.913 7.244	.000 .000	.152 (.149)	52.475 (.000)
2 상수 멘토링 창업효능감	.559 -.039 .871	.223 .064 .068	-.033 .698	2.506 -6.04 12.883	.013 .546 .000	.460 (.456)	165.960 (.000)
3 상수 멘토링 창업효능감 멘토링*효능	.750 -.090 .820 .013	.965 .259 .262 .066	.076	.777 -3.46 3.129 .203	.438 .729 .002 .839	.460 (.455)	.041 (.839)

검증결과 R<sup>2</sup>은 모형 1에서 15.2%, 모형 2에서 46.0%, 모형 3에서 46.0%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 변화량에서 .839으로 나타나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기각되었다.

## V. 결론

<표 10> 연구결과 요약

###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정부창업지원정책은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이며,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등과 같은 활동들과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등이다. 정부창업지원제도나 학생들과 밀착되어 있는 대학창업지원 모두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실질적인 창업의지에는 대학창업지원사업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창업멘토링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창업효능감이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와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와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여섯째, 창업효능감이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일곱째, 창업효능감이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대학창업지원사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여덟째, 창업멘토링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 있어 조절작용을 하는지 검증한 결과, 창업멘토링과 대학생의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연구결과를 아래 <표 10>로 정리하였다.

가설	내용	결과
1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창업멘토링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	창업효능감은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6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정부창업지원정책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7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8	창업효능감은 창업멘토링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 5.2.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교육에 대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학창업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정부창업지원정책, 대학창업지원정책),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추가적인 고찰을 하였다. 실제 분석결과 대학창업교육만족도, 대학창업지원사업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정부창업지원정책, 창업멘토링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비교과 과목 수강 중 만족도 높은 대학창업교육에 큰 영향을 받고 이러한 영향이 창업의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며, 맞춤형으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대학창업지원사업 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정부창업지원정책은 아직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창업멘토링의 경우 일반적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의 경우 큰 도움이 되지만 대학생의 경우 대학의 눈높이로 정보 지원, 연계 지원 등의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 다양한 대학창업지원사업의 활동들은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창업지원정책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창업효능감 변수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보았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지원제도인식 중 대학창업지원사업과 대학생의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정부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대학 내 창업상담창구의 부재를 의미하며,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창업멘토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란 수행능력과 별개로 할 수 있는 신념(belief)으로 가득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창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창업효능감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제공, 정보제공, 멘토링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극대화하고 실천창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 내외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창업아이템을 실체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계,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멘토링 제공, 상시상담이 가능한 창업상담창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내 창업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제도 및 창업의 간접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창업지원사업과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창업지원정책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창업멘토링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설문대상자가 창업멘토링의 멘토링 기능 및 멘토신뢰의 정의와 본인이 창업멘토링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 교수, 직원, 선배창업자 등 창업 분야의 멘토와의 연결을 통해 창업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준비되지 않은 대학생의 창업은 창업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의 준비과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선배창업자의 창업실체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창업특강, 대학생의 전공별, 개인별 성향에 따른 맞춤형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능감의 설문에 있어 창업효능감이 생기는 시점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설문대상이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효능감이 높을 것이며, 창업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반대로 창업효능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차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충청권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또한, 각 대학에서 운영중인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별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을 멘토링 기능과 멘토신뢰로 정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대학생들이 창업멘토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멘토링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지만, 창업의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회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 493-507.
- 곽동신(2020). *멘토 역량 및 멘토링 기능이 다차원 신뢰와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교육부(201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m=041202&s=moe&page=109&boardID=339&boardSeq=50284&lev=0&opType=N> 교육부.
- 교육부(2018).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02&opType=N&boardSeq=74314> 보도자료 교육부.
- 김기홍·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 김명숙(2019). *창업교육만족도와 가족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봉준·조성의(2014). 대학생 창업의도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지식기반 창업에 초점. *한국창업학회지*, 9(4), 86-106.
- 김세웅(2009). 스포츠조직의 멘토링척도 개발. *체육과학연구*, 20(1), 37-45.
- 김해룡(2008).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격 5요인이론과 셀프리더십이론의 탐색적 적용. *대한경영학회지*, 21(6), 2393-2420.
- 나현미(2019). *대학생의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지속의향에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박은주(2012).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업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재환·김용태(2009).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2(4), 1777-1801.
- 서정해(2006).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한중일 대학생의 의식. *경영교육논총*, 43, 153-171.
- 신향숙(2021).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오상훈(2013). *청장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오연석(2019). *대학생의 창업불안이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참여와 기업가 정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오현준(2015).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정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유연호(2009).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유영철(2023). *대학생의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을 조절효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한국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윤성준(2000). 웹쇼핑몰 사이트 신뢰도의 결정요인과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 접근방법. *경영학 연구*, 29(3), 353-376.
- 이강임(2018). *대학생의 창업가적 개인특성이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제도인식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학생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임교순(2013).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정연수·조동환(2020).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의 중요도 비교 연구. *한국창업학회*, 15(4), 145-164.
- 정연수·조성희(2013).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창업학회지*, 8(1), 57-73.
- 정유선(2018). *대학생들의 개인특성이 창업교육, 창업관련지식, 자기효능감에 의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조병주(1998). 창업교육: 교육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2(2), 27-48.
- 조영조(2016). *한·중·일·홍콩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조장현(2017). 창업 멘토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벤처창업연구*, 12(5), 67-77.
-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1000> 세종: 중소기업부.
- 한원희(2019). *대학 창업교육과정 만족도가 기업가적 기민성,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홍정표(2014).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황규삼(2017). *외식창업자의 창업교육이 학습전이효과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정책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hn, S. K.(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will.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Astin, A. W.(1997). *Four critical years. Effects of college on beliefs, attitudes, and knowledge*, San Francisco: Jossey Bass.
- Axtell, C. M., Maitlis, S., & Yearta, S. K. Predicting immediate.
- Atuahene-Gima, K. & Wei, Y. S.(2011). The Vital Role of Problemsolving Competence in New Product Succes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8(1), 81-98.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Burke, R. J.(1984). Mentors in Organizations. *Group and Organization Studies*, 9(3), 353-372.
- Cho, Y. J.(2016).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environmen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China, Japan and Hong Kong.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Cho J H.(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Scale. *Venture Startup Research*, 12(5), 67-77.
- Day, R., & Allen, T. D.(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ee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1), 72-91.
- Gartner, W. B., Mitchell, T. R. & Vesper, K. H.(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13-31.
- Han, W. H.(2019). The Effect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Curriculum Satisfaction on Entrepreneurial Agility,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Wil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urriculum characteristic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Hwang, G. S.(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learning transfer effec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taurant entrepreneurs. Focusing on the regulatory role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Ph.D.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Haycock, L. A., McCarthy, P., & Skay, C. L.(1998).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6(3), 317-324.
- Hong, J. P.(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will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Jeong, Y. S & Jo, D. H.(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ortance of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will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Society for Entrepreneurship*, 15(4), 145-164.
- Jeong, Y. S. & Jo S. E.(2013).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Will among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8(1), 57-73.
- Jeong, Y. S.(2018).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will by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related knowledge,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 Jo, B. J.(1998). Entrepreneurship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Effective Teaching Methods.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2(2), 27-48.
- Johnson, D. & Grayson, K(2005).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in Service Relationship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4), 500-507.
- Katz, J., & Gartner, W.(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 429-441.
- Kang, J. H & Yang, D. W.(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493-507.
- Kim, B. J. & Cho, S. E.(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 on knowledge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Kore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9(4), 86-106.
- Kim, H. R.(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Self-Leadership of Potential Founders in the Micro Business Area on Founder Self-efficacy: Applying the Big Five Factors Model and the Self-Leadership Theory.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6), 2393-2420.
- Kim, K. H. & Kim, Y, T.(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educ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and entrepreneurial wil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9(5), 33-41.
- Kim, M. S.(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and Family Support on Entrepreneurial Will;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Kim, S. W.(2009). Development of Mentoring Scale for Sports Organizations. *Sports Science Research*, 20(1), 37-45.
- Kram, K. E.(1983). Phases of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91.
- Levinson, D. J., & Mckee, B.(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ew York Ballentin Book.
- Lewis, J. & Weigert, A(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967-985.
- Lee, K. I.(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person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ial will according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Focusing on health students, master's thesis, Hanbat University.
- Lim, G. S.(2013).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Es.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 Lina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Mayfield, J., Mayfield, M. & Kopf, J.(1995). Motivating Language: Exploring Theory with Scale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2(4), 329-344.
- McAllister, D. J.(1995).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1), 24-59.
- Mian, S. A.(1996). Assessing Value-added Contributions of University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to Tenant Firms. *Research Policy*, 25(3), 325-335.
- Ministry of Education(2013). *Announcement of the 5-year plan for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ess release.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m=041202&s=moe&page=109&boardID=339&boardSeq=50284&lev=0&opType=N>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2018). *Announcement of the 2nd 5-Year Plan for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0402&opType=N&boardSeq=74314> press release.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 *Integrated announcement of 2022 start-up support project*.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1000> Sejong: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oorman, C., Zaltman, G. & Deshpande, R(1992). Relationships between providers and users of market research: The dynamics of trust within and between organiz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9(3), 314-328.
- Na, H. M.(2019).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among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intention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non-subject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Noe, R. A.(1988).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Assigned Mentoring Relationship. *Personern Psychology*, 41(3) 457-479.
- Oh, S. H.(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n entrepreneurial will of young adults and senio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Oh, Y. S.(2019).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Anxiety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Will;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 Oh, H. J.(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 Park, E. J.(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hip Will; Focusing on the difference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Park, J. H. & Kim Y. T.(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differences according to learner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4), 1777-1801.
- Parayitam, S., & Dooley, R. S.(2009). The Interplay Between Cognitive-and Affective Conflict and Cognition-and Affect-based Trust in Influencing Desion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8), 789-796.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Seo, J. H.(2006). Korea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43, 153-171.
- Sour, R., & Rasmussen, S.(2003). Butterfly Power in the Art of Mentoring Deaf and Hard of Hearing College Students. *Mentoring and Tutoring*, 11(2), 255-272.
- Shin, H. S.(2021).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ial spirit, and entrepreneurial will.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Viator, R.(2001). The Association of Formal and Informal Public Accounting Mentoring with Role Stress and Related Job Outcome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6(1), 73-93.
- Walter, Auer & Ritter(2006). The Impact of Network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University Spin-off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4), 541-567.
- Wrightsmann, L. S.(1991). Interpersonal trust and attitude toward human nature,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n(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ttitude, Vol. 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373-412.
- Yoo, Y. H.(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Focusing on career orientation, socio-cultural factor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Yoo, Y. C.(2023).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wi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and entrepreneurship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will: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Master's thesis, Hanbat University.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Wil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 Industry-University Management Research*, 17(2), 89-110.
- Yoon, S. J.(2000). A simulation approach to the determinants of web shopping mall site reliability and their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29(3), 353-376.
- Zur, A., Leckie, C. & Webster, C. M(2012).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between Australian exporters and their overseas buyers.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0(1), 73-79.

# The Effect of Satisfaction Level with th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cognition of Support System, and Mentoring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Yu, Young Cheul\*\*  
Lee, Won I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start-up education, start-up support system, and start-up mentoring directly and indirectly conducted in universities affec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present programs and directions that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tart-up f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war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and entrepreneurship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will, and then analyzed how entrepreneurship efficacy affects entrepreneurial will as a moderating effect. The recognition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was divided into the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and the university start-up support project, and start-up mentoring was divided into mentoring function (problem-solving function, networking function, communication function, motivation function) and mentor trust (cognitive trust, emotional trust).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satisfaction with colleg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entrepreneurship mentoring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willingness to entrepreneurship as 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entrepreneurship efficacy was designated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start-up educ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Second, among the start-up support systems, university start-up support project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art-up support projects and college students'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while recognizing the start-up support system, i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efforts to improve start-up education will be need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start-up education. Second,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tart-up counseling center in the university, it will be possible to recognize the education system supported by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start-up support project that can carry out the indirect experience of start-up, and the government start-up support policy that supports fund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open a program that can provide start-up mentoring through connection with mentors in the start-up field, such as professors, employees, and senior start-ups in univers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orough education on the preparation process of start-ups, start-up special lectures where senior start-ups can indirectly experience the failure of start-ups, and programs for customized start-up education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major and individual tendencies.

*KeyWords: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cognition of Support System, Mentor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 This research paper was prepar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in the Department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Department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ial Management, Hanbat National University, s170777@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bat National University, tech201@hanbat.ac.kr